

2019학년도 하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9. 08. 05. ~ 08. 25.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Langara Collge는 밴쿠버의 중심에 위치해서 공항이나 다운타운에서도 가까워서 좋았다. 그리고 근처에 버스나 스카이 트레인이 워낙 잘 되어있다. 학교 안에 스타벅스나 팀 홀튼 등 카페도 많고 식당 안에도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여름방학이었어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은 다들 서로 친하고 모두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였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받은 테스트를 통해서 나누어졌다. 수업은 번역사, 밴쿠버의 문화, 우리나라와 밴쿠버의 차이 등을 반 친구들과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선생님은 항상 웃으면서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고 쉽게 설명해주셨다. 과제는 하루에 한 개 정도씩 10분 내외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간단했다. 또 activity를 가서 하는 과제도 내주셨다.</p>
필드트립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p> <p>1. kayaking 딥 코브로 스쿨버스를 타고 다 같이 갔다. 가서 안전교육이랑 설명 등을 하고 바로 장비를 챙겨서 출발한다. 카약은 2인용이었고 생각보다 멀리가서 어깨가 좀 아프다. 바지도 거의 다 젖었다. 준비물은 모자랑 선글라스 선크림 필수이고 노를 저으면서 바지가 젖거나 옷이 조금 젖는다. 날씨가 따뜻해서 금방 마르기는 하는데 방수 옷이 편하다.</p>

	<p>2. Discovery of Vancouver 디스커버리는 팀을 나누어서 캐나다플레이스, 게스타운 등등 캐나다의 명소 거의 모든 것을 같이 탐험한다. 반나절을 같은 조 친구들이랑 다녀서 정말 많이 친해진다. 그리고 가이드 분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잘 이해가 되었다. 오래 걸어야 되서 편한 옷을 입고 중간중간 배고플 수 있으니 간식을 많이 챙기는 것이 좋다</p> <p>3. aquarium of Vancouver 스탠리 파크에 있는 아쿠아리움으로 갔었다. 가서 반 친구들과 함께 둘러봤는데 되게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있었다.</p> <p>4. museum of Vancouver 밴쿠버 해양 박물관으로 갔는데 가기 전에 수업에서 조를 나눠서 내용을 찾아서 적는 과제를 받아서 조끼리 열심히 찾아다닌다고 친해졌다. 그리고 밴쿠버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재밌었다.</p> <p>5. Whistler 별로 기대 안 하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폭포도 보고 도착했는데 풍경이 너무 이뻐다. 흐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곤돌라를 타고 가는데 천국이 따로 없었다. 올라갈수록 너무 추웠긴 한데 위에 가면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어서 따뜻한 커피 마시면 좋다.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추워서 기모 옷 정도 들고 가도 될 것 같다. 곤돌라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산꼭대기부터 타고 오는 사람들을 봤다. 나도 타고 싶어서 내려가서 알아봤는데 초보자도 가능하고 자전거랑 안전장비도 빌려줘서 다음에 꼭 하고 싶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 아침이랑 새벽에는 20도 밑으로 떨어져서 문을 열어두고 자면 추웠다. 낮이 되면 또 더워진다. 근데 높아도 25~26도라서 한국보다 훨씬 낮고 날씨가 되게 건조해서 그늘에 들어가면 온도가 확 달라져 시원하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 아무래도 마약이 합법이다 보니 길 가다 보면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가끔은 본다.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가면 상관없다. 밴쿠버가 겨울에도 그나마 덜 추워서 홈리스들이 많이 모인다고 한다. 특히 해스팅즈 거리에 가면 몇 백 명이 길거리에 자리를 잡고 있다. 가끔은 말을 막 걸때도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것이 답이다. 그래도 10시 이후로 혼자 밖</p>

	에 돌아다니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다.
숙소	<p>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p> <p>집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규칙이 적혀진 종이를 받았다. 규칙은 딱히 까다로운 것이 없었지만 문화가 조금 다를 뿐이었다. 샤워는 평균 10분 안으로 하고 세탁도 자주 하지 않았다. 조금 불편했지만 이 나라의 문화에 맞춰 한 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참고 잘 생활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주며 뭐 했냐고 물어봐 주셨다. 신경도 많이 써주셨고 마지막 날은 다 같이 외식도 하곤 했다. 집 시설도 너무 좋아서 만족한다.</p>
식사	<p>학교식당 () 외부식당 (v) 기타 (v)</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주로 아침이랑 점심은 홈스테이에서 해주는 밥을 먹었다. 아침은 주로 시리얼이나 감자 샌드위치였고 점심은 매일 햄버거, 샌드위치였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을 가져가서 점심때는 같이 먹었다. 처음 며칠은 홈스테이에서 저녁도 먹다가 그 뒤로는 놀다가 대부분 늦어져서 밖에서 먹었다. 또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저녁은 주로 한인식당을 자주 갔었다. 주말에는 홈스테이 음식도 다양해서 점심까지는 꼭 먹고 나갔다.</p>
교통	<p>시내교통 관련</p> <p>Langara college에서 홈스테이 집이 되게 가까워서 룸메이트랑 걸어서 올 때도 있었지만 버스를 타면 5분이면 도착했다. 랑가라 근처에 스카이트레인 역이 있어서 다운타운을 가고 싶으면 역으로 가서 쪽 올라가면 금방 도착해서 편했다. 어디에든 버스가 잘 되어있고 버스 배차간격도 많이 크진 않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728900	출국 전 사전 납부
기념품	90000	
입장료	115000	스탠리파크 자전거 대여, Pne놀이공원, 캐필라노 브릿지

쇼핑	300000	
식비	500000	
합계	27339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홈스테이 - 출국 전에 이메일로 가면 제공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수건을 받았는데 빨래를 한 번에 많이 돌리다 보니 먼지도 많이 묻어있고 그래서 좀 그랬어요 개인 수건도 몇 개 챙겨가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밖에서 물을 사면 좀 비싸서 텀블러를 들고 와서 집에서 받아서 먹는 것이 좋아요.

음식 - 저는 혹시 몰라서 컵라면 10개 정도 들고 갔는데 너무 도움이 됐어요. 입 맛이 안 맞아서 그런지 점심에는 라면을 꼭 같이 먹었어요. 또 다른 간식이나 컵밥도 좋아요.

일상 - 날씨가 되게 건조해서 입술이 자주 따가웠어요. 립밤 챙기면 좋아요.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라는 동전을 되게 많이 써서 동전지갑이 필요했어요. 또 아침저녁으로 되게 쌀쌀하고 비도 가끔씩 오면 추워서 긴팔이나 셔츠 가디건 같은 따뜻한 옷도 가져가면 좋아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3주라는 기간이 짧을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다. 정말 밴쿠버의 반을 갔다 온 것 같다.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어디든 갈려고 학교 마치고 떠났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다. 집에서 자는 시간에 하나라도 밖에서 느끼고 즐기고 하는 것이 좋았다. 캐나다

는 우리의 문화와 정말 많이 달랐다. 하지만 그것을 몸소 그대로 받아들일려고 했다. 다른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이 여행의 반이라고 생각한다. 피곤하고 음식도 조금 안 맞고 시차 적응도 잘 안돼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3주 동안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 특히 홈스테이에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버스를 내릴 때 모두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내리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을 먹었다. 나도 그런 점을 배우고 실천하고 싶다. 밴쿠버에서 한 달 혼자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향후 실천할 계획이다. 학교에서도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만나 각자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곤 했는데 너무 좋았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캐나다플레이스



발표



스탠리파크



휘슬러



휘슬러 가는 길



개스타운